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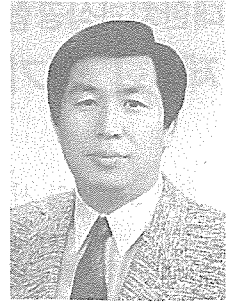
제22대 집행부 구성 완료

지난1일 제22대 김정균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10개 상임 위원회 12명의 이사진이 확정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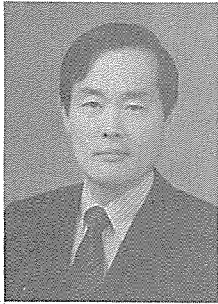
「강력한 집행부」를 내걸고 출범한 김정균집행부담게 회무와 경륜을 고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집행부로 현 당면 치과계의 과제를 헤쳐나가는데 탄탄한 팀웍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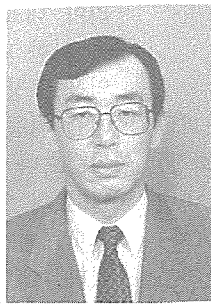
〈정관희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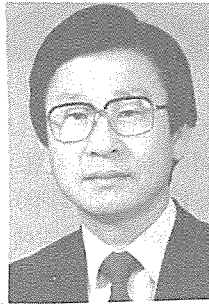
〈정재규 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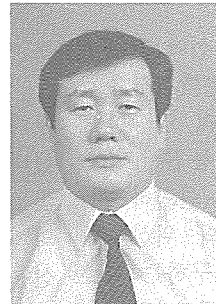
〈김영구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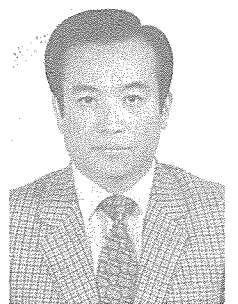
〈김중수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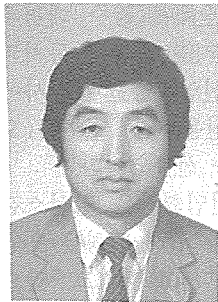
〈최종운 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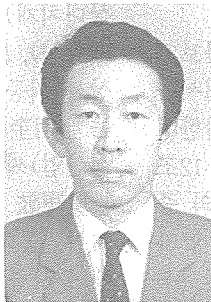
〈최성근 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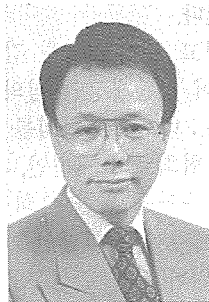
〈명어철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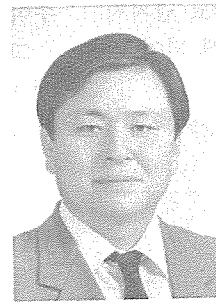
〈변영남 공보〉



〈김동기 군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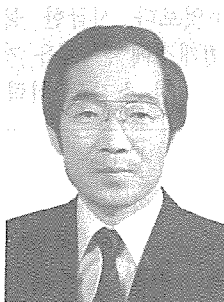
〈김우성 자재〉



〈이찬영 보험〉



〈차혜영 이사〉



〈이종훈 신입학장〉

서울치대 20대 학장에 이종훈교수 취임

지난 14일 서울치대 학장에 이종훈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서울치대학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61년 제15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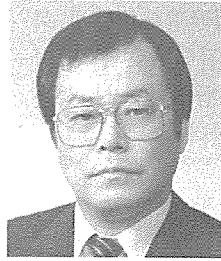
졸업하여 68년부터 서울치대에 몸담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를 거쳐 현 교수로 재직중으로 36년 출생하여 대한구강병리학회, 86~88년 국제 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장, 87~89년 서울치대 부설 치학연구소장, 90~현재까지 한국치과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대한치과상공협회(舊 : 大韓齒材協會)

제8회 정기총회 吳東鉉씨 新任會長에 當選

지난 5월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大韓齒科商工協會(구: 대한치재협회) 제8회 정총이 재적의원 234명중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崔洛哲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개최되었다.

최초의 회장선출 경선이 있었던 이날 정총에서 金德俊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의 명랑한 풍토조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회원 서로가 신뢰하는 바탕위에 우리 모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치재계의 선진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밝힌 뒤 「임기 마지막을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임기를 마치게 되어 기



오동현 신임회장

쁘다」는 개인적인 소감도 피력했다. 이어 金華奎(치협 부회장) 및 조동환(기공협 회장)등 내빈의 축사에 이은 수상식에서 (주)신흥의 李東圭사장과 부산지부의 李慶植지부장이 공로패를, 치계신문 劉昌德국장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리고 결산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제 1조 : 대한치재협회를 대한치과상공협회로의 개칭안, 제 12조 : 회무운영을 위한 부회장의 증원안, 제 13조 : 회장선출의 합리성을 위한 2차 결선투표안, 수익산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 32조 3항이 신설 삽입되어 이를 심의 확정했다.

한편 1부 행사에 이어진 회장단선출에서는 金幸得전임회장이 만장일치로 임시의장에 선출, 정

관 제 13조 규정에 의한 회장선출 및 감사인선을 선포하였다.

치재협 최초의 경선이기도 한 이날 후보로는 불합리의 종식을 내건 吳東鉉(에스에스화이트 코리아 대표)씨와 협회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과 회원의 권익을 주창한 徐丙洙(비제이통상 대표)씨등 2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뤘으나 총 164표(무효 2표)중 115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吳東鉉씨가 신임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부회장에서는 宋圭鉞(서울, 미동양행), 崔樂東(부산, 상대치재), 全剛德(광주, 대광치재상사), 盧判錫(대구, 한독치과상사)씨등 신임회장단과 감사에는 金明奎(신용무역), 崔洛哲(오성산업)씨가 선출되었다.

吳東鉉 신임회장은 당선소감에서 「협회를 위해 연령을 초월해 봉사하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의한 회원의 권익옹호와 의료용구 공업조합에서의 추천권 이양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불합리한 약사법개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총회장단

대한치과 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지난 22일 대한치과보철학회

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임상 증례 및 특강, 기자재 전시도 있었다.

이날 특강으로는 정진구박사

의 <교정성 보철물의 심미성>을, 최대균교수의 <가철성 보철물의 심미성>과 김성오원장의 <부분 무치악> 김영수교수의 <전부 무치악>의 강연이 있었다.

**한림치과산업-정부
중진공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창업 지원을 승인한 38개사 가운데 치과관련 기재업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한림치과산업(대표: 안병일氏)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

졌다. 중진공은 이들 38개사의 중소기업에 2백24억2천7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 업체에는 5억원이내의 시설자금과 2억원이내의 운전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한림치과산업도 앞으로 3년간의 창업지원을 받음

과 동시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제31권 4호 「특집II」의 저자 소속-「에치과 그룹」을 「에치과 병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Prof. Dr. Dr. h.c. Andre Schroeder 教授

“The Honory Fellowship” 授賞

지난 93年 3月 3日~6日, 산티에고에서 第 8回 Osseointegration 學會가 開催되었는데 이날 受賞式에서 Schroeder 教授(베른大學)가 그의 탁월한 임프란트 研究를 評價받아 Prof. Per Ingvar Branemark에 이어 두번째의 “The Honory-Fellowship”을 授賞했다.

I.T.I.財團의 設立者이기도 한 Schroeder 教授는 主로 齒內療

法學의 研究에 힘써 1957年에는 바젤大學에서, 스위스에서는 Ph.D.와 同格인 教授資格(Habilitation)을 取得했으며, 특히 베른大學에서는 매우 드문 研究業績을 쌓아 1969年에는 스위스의 醫學部에서 齒科醫로서는 最初로 正教授가 되어 1971年에는 醫學部の 優秀한 研究팀을 이끌고 齒內療法學에 研究精進하여 數 많은 組織學的 軟球를 하였

또한 Schroeder 教授는 臨床을 行하는 데 있어 基礎가 되는 科學 및 教育의 重要성과 患者를 위하여 齒科醫는 知識, 臨床, 經驗을 서로 交換해야 한다고 確信하고 이를 위해 齒醫學에 의한 國際的인 團體의 必要性을 認知, Dr. Fritz Stroumann과 各 大學의 教授進과 協力하여 1980년에 International Team for Oral Implantsology(I.T.I)를 設立했으며 1988년에는 次世代 젊은 後學들에게 研究의 機會를 주기 위하여 I.T.I-財團을 設立, 基礎研究 및 臨床研究를 支援하는 등 많은 業績을 쌓았다.

Precision Attachment Seminar 안내

성원물산에서는 치과 의사를 위한 Attachment RPD와 Attachment Retained Overdenture에 대하여 기초 이론, 적용원리 및 Attachment Prostheses의 치료계획과 임상 술식에 대한 Seminar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한번의 세미나는 2회에 걸쳐 총 8시간으로 개최되며 인원은 15명으로 제한 된다. 개최일시는 매회 2개월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성원물산에서는 이밖에도 치과 기공사를 위한 CM Precision Attachment Training Course를 매년 2회씩 5개월에 걸쳐 실시한다. 5개의 주제로 매월 일일씩 개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제한 인원은 12명인데 구체적 일시는 매월 6개월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상기의 두 과정은 모두 성원물산(전화: 776-1656, 774-1636) Seminar Room에서 개최된다.